

# 광양 진상면 청암뜰 염수 피해 확산 원인 논란

### 18농가 7.2ha로 늘어... 모종 말라죽고 작물 생육발달 저해 전남도·수자원공사 용역 조사 “지하수 과다사용 탓” 농민들 “수여천 제방개선 과정 구멍 뚫려 해수 유입” 주장

광양시 진상면 소재 청암뜰 시설하우스에서 바닷물 유입에 따른 염수피해가 확산돼 농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광양시와 진상면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 광양시 등 관련 기관이 청암뜰 시설하우스 바닷물 유입 원인을 찾기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암뜰 농민들은 직접 ‘진상면 염수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수 유입 차단시설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당초 3농가 0.8ha에서 시작한 염수 피해가 최근 18농가 7.2ha로 증가하는 등 갈수록 확산하고 있어서다. 농민들은 진상면 수여천 제방 인근 청암뜰에서 지난 2013년 3월께 지하수 관정

으로 뽑아 올린 물에 염분이 섞여 나와 작물의 생육발달 저해 및 모종이 말라죽는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암뜰은 전체 경지면적 135ha 가운데 시설하우스 면적이 31.6ha에 모두 264동에 이르며, 애호박과 양상추, 취나물 등을 주로 재배하는데 염수피해를 본 농가는 수막재배를 하는 애호박 농가와 양상추 농가가 대부분이다. 수막재배는 밤이 되면 두 겹으로 만들어진 비닐하우스 지붕 사이에 지하수를 계속 흘려 넣어주는 농업기법으로, 추운 날씨에도 지하수가 15도 정도여서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를 유지시켜 준다. 청암뜰 농민들의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전남도와 광양시, 수자원공사 등은 2억5000만원의 용역

비를 들여 지난 2014년 7월부터 청암뜰 농경지 95ha를 대상으로 염수영향 지역과 경로, 오염도와 오염범위 파악, 염수영향의 원인과 방지대책 방안 등을 찾는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결과 염수피해의 원인이 수막재배에 따른 난방용 지하수 과다 사용과 관정 대화화 등 농민이 지하수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전남도와 수자원공사 등의 설명이다. 하지만, 광양시가 염수 피해원인을 농민 탓으로 돌리는 용역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하층부 염수 이동방지를 위한 수중부 검토와 수여천 유지수 확대 등 대책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최종보고회는 연기된 상태다. 청암뜰 농민들은 2년을 넘게 끌어온 용역에서도 뚜렷한 결과와 대책이 나오지 않아 직접 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비대위는 “이번 용역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남도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수여천 제방 개선 사업 과정에서 수여천 하상을 과다 준설해 제방에 구멍이 뚫리면서 해수가 농경지로 유입됐으며, 수여천 방류량마저 감소해 수여천 내로 해수가 밀려온 탓에 농경지에도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최근 전남도를 방문해 수여천 염수 유입 구간인 700~750m 하천바닥에 해수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어막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광양시와 농어촌공사에 하우스단지 4곳에 지하수 부족시 사용할 수 있는 집수정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박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역결과처럼 농민들이 관정을 많이 파 물을 과다하게 썼다면 2013년 이전에도 염수피해가 발생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난 2013년 3월 최초로 염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전에는 어떠한 농가에서도 염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드르드르~ 재봉틀 배우며 소통해요 ‘문화공간고시내길 39’ 지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광양시가 지원하는 문화단체 ‘문화공간고시내길39’가 다함번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월·화요일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재봉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림식품축산부와 ‘KRA와 함께 하는 농어촌희망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해 농촌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에서도 가능한 지속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다함번 섬진마을 매화정보학교 옥장에서 진행되며, 2인 1조로 배게 커버, 스커트, 앞치마 등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소품부터 옷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또 공방만들기 워크숍도 함께 진행해 재봉틀을 통해 지역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원단과 제도 도구 등 최소한의 부재료는 무상으로 지급되며 참가자는 재봉틀을 준비해 참여하면 된다. 한편 ‘문화공간고시내길39’는 지난 2014년 설립돼 전시기획, 교육프로그램개발, 공연, 출판 등 다양한 예술창작과 문화교류활동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는 단체다. 지금까지 ‘고무신의 재탄생’, ‘사진을 배우다’, ‘나무의 재탄생’ 등 다양한 문화체험 교실을 운영해 지역민과 소통해 오고 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 광양제철 견학안내센터 새 단장...백운아트홀로 이전

광양제철소가 방문객의 제철소 이해도와 견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견학안내센터를 기존 전남드래곤즈 전용구장 인근에서 백운아트홀로 이전했다. 새롭게 단장한 백운아트홀 견학안내센터에는 홍보영상 시청실과 전시부스, 포토존, 안내대접 등이 들어서 있다. 기존 광양제철소 방문객은 별도의 홍보영상 시청 없이 현장견학을 실시했으나, 이번 이전으로 견학안내사원의 안내에 따라 백운아트홀 2층에서 광양제철소 홍보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또 1층 로비에서는 ‘포스코 역사’와 ‘공정 및 제품 테마’로 구성된 전시부스를 관람할 수 있다. ‘포스코 역사’는 1968년 포항제철소 창업부터 광양제철소 건립 및 주요 연혁에

대해 사진과 설명으로 꾸며져 있다. ‘공정 및 제품’은 광양제철소의 일관 공정 생산라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선, 제강, 압연공정을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생산 제품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도 보여준다. 로비에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인 광양제철소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에 성공한 트윈(TWIP)강을 최초로 자동차에 적용한 피아트(FIAT)사의 차량도 전시돼 있다. 또 로비 안팎에는 사진작가 준준이의 대형공방 사진과 철 조각품을 포토존으로 꾸며주며,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안내대접 ‘스틸스토어(Steel Store)’도 신규 운영하고 있다.



백운아트홀로 이전한 광양제철 견학안내센터. 견학센터 관람 후 방문객들은 차량을 타고 제철소 안으로 들어가 용광로와 원로부 등 시설을 돌아보고, 열연공장에서 시각 슬라브가 두루마리 코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견학하는 현장투어도 할 수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백운산휴양림 20일부터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광양시는 “백운산자연휴양림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양림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숲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1일 2회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숲해설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휴양림을 이용하는 시민과 휴양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자는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 휴양림 내 황톳길 입구로 오면 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황톳길, 삼나무길 등 코스별로 숲자원 효용가치 설명, 식물이야기, 숲속명상, 자연물을 이용한 숲체험 등이다. 임경안 광양시 휴양림관리팀장은 “백운산자연휴양림을 찾는 휴양객의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광양시, 한려·보건대 살리기 적극 나서 범시민대책협의회 구성...통폐합 반대·준치 요구

광양시가 지역 내 대학교의 존립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최근 시청에서 ‘한려대·광양보건대 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내 대학교의 존립 위기에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범시민대책협의회에는 정현복 시장, 송재천 의장, 민영방 교육장, 황재우 (재)백

운장학회 상임이사, 문승표 (재)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등 5인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광양지역 사회단체장과 상공인단체 등 총 19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범시민대책협의회는 최근 한려대학교와 설립자가 같은 서남대학교의 옛 재단에서 양 대학의 통폐합을 전제로 한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데 따른 지역

역의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해 구성했다. 지역 여론은 “설립자의 비리로 빚어진 대학 경영 부실을 무고한 학생과 지역사회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려대와 보건대는 개교 후 20년 이상을 지역사회와 함께한 대학으로, 그동안 행정, 보건복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배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대학의 존재는 지역발전 가속화와 도시의 성장 잠재력에도 상관관계가 있는데다 지역경제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게 지역민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소 도시에도 대학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한려대학교의 통·폐합 반대 및 존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두 대학교의 정상화를 돕자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몇 년 전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유지 실패 후 흥역을 치렀던 경험으로 볼 때 대학교 유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면서 “한려대와 보건대를 살리기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아 상생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동광양농협 하나로마트 ‘할머니 밥상 사업’ 성금 전달

동광양농협 하나로마트는 “지난 12일 이웃사랑실천을 위해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이사장 문승표)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광양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마동 주민센터(동장 서영준)와 아파트부녀회가 실시한 여름방학 ‘할머니 밥상’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성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 밥상’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선정된 아파트 2곳의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할머니 밥상 사업 아파트는 호반리전 시빌아파트와 금광아파트다. 김성철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사무국장은 “8년째 꾸준히 복지재단과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 동광양농협의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수신경계: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천변 방향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임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